

## 통 큰 SK 와이번스, 야구드라마 '스토브리그' 지원 사격

“선수들 카메오 출연도 논의”

남궁민이 주연해 11월 방송하는 SBS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가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SK)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18일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스토브리그'는 SK의 지원 속에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야구 소재 이야기인 만큼 관련 전문정보는 물론 촬영장소까지 제공

받으며 드라마의 완성도와 사실성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스토브리그'는 만년 리그 꼴찌팀 '드림즈'가 새로 부임한 단장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야구를 소재로 하지만 구단 운영을 전면에 내세워 선수들보다 단장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스카우트, 전력분석 등 각 부서의 팀장 등 프런트의 에

피소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촬영 전부터 사전 작업에 공을 들여 SK의 지원을 받게 됐다. 대본 집필을 맡은 이신화 작가, 단장 역의 남궁민, 운영팀장을 맡은 박은빈 등은 일찌감치 관계자를 만나 조연을 구했다. 또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정보를 얻고

전문용어 등도 익혔다. 극중 단장 사무실이나 각종 공간은 실제 구장인 인천 강화도의 SK 퓨처스 구장을 활용한다.

관계자는 "SK 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드라마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실제 선수들의 카메오 출연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연예

11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 전전긍긍 '날씨의 아이' vs 위풍당당 '신문기자'

## 같은 일본영화 다른 반응...왜?

NO 재팬 정서에 '날씨...' 시골 아베 비판 '신문기자'는 호의적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영화계에서 'NO 재팬'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팬덤이 확고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의 개봉일이 확정되자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한편 11월 일본에서 개봉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현지 프로모션에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뜨거운 시선이 향하는 작품은 10월 30일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다. 2017년 폭발적인 반응으로 370만 관객을 동원한 '너의 이름은.'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이다. 흥성도 높

은 팬덤을 가진 감독인 만큼 기획부터 관심을 얻은 화제작이지만 한일관계 악화 탓에 개봉까지 과정은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다. 개봉 날짜만 확정했을 뿐인데 각종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팬덤과 'NO 재팬' 정서가 맞붙는 분위기다.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수입배급사 미디어캐슬은 이례적으로 개봉일을 공개하며 국민정서에 공감한다면서 개봉 시기가 임박해 처음 약속대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 유통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미디어캐슬은 "각 콘텐츠의 계획에 따라 당장 사업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이해를 당부하면서 "(이번 결정이)시민사회 캠페인과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가진 분들께 송구하다"고 덧붙혔다.

반면 다른 의미로 주목받는 일본영화도 있다. 10월 초 개봉하는 '신문기자'는 2017년 일본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 비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심은경이 진실을 쫓는 기자 역을 맡아 아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6월28일 일본에서 개봉해 반향을 일으켰고, 4개월도 안돼 국내 개봉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일부 '협한' 정서 탓에 한국영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명 영화평론가 마지야마 토모히로는 이달 초 SNS에 "올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한국영화(기생충)의 배급사가 일본 여러 방송에 작품 소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 관계자들을 향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영화 '버티고' 천우희 아찔한 뒤통

'섹시한 백 라인' 배우 천우희가 18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버티고' 제작보고회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등이 뒤통 드러나는 독특한 디자인의 원피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10월17일 개봉하는 '버티고'에서 천우희는 30대 직장인을 연기한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비아이, 일부 마약 혐의 인정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3)가 일부 마약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14시간여 조사를 받은 비아이는 이로써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비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관련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종팔프로듀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 몬스타엑스, 美 NBC '엘렌쇼' 출연

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 NBC의 대표적인 토크프로그램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출연한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8일 몬스타엑스가 25일(현지시간) 이 프로그램에서 무대를 펼친다고 밝혔다. '엘렌 드제너러스 쇼'는 코미디언 겸 배우 엘렌 드제너러스가 진행하는 토크쇼로, 한국 가수로는 싸이와 방탄소년단 등이 출연했다.

#### 김진우, 태풍복구비용 1000만원 기부

그룹 위너의 멤버 김진우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써 달라며 성금을 기탁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진우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000만 원을 내놓았다. 김진우의 기부 소식은 링링의 피해 규모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전해진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 '녹두전' 김소현-장동윤의 무거운 어깨

(KBS 2TV)

스타동용문 '학교' 출신 부담감 '꽃파당'과 퓨전 사극 맞대결도

연기자 김소현과 장동윤이 신작 공개를 앞두고 새삼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두 사람은 30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월화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의 주인공으로 드라마의 인기를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학교' 시리즈 출신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였다.

김소현과 장동윤은 각각 2015년 '후아유-학교 2015'와 2017년 '학교 2017'에 출연했다. '학교' 시리즈는 1999년 선보였을

때부터 시즌마다 신예 연기자를 배출하며 '스타 동용문'으로 불렸다. 장혁·배두나·하지원·김민희 등이 이를 통해 스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그 파급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스타 발굴의 장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김소현과 장동윤도 '학교'의 '후광'을 얻어 주연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아역 출신 김소현은 '학교 2015'를 통해 오묘한 주연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이끌었다. 장동윤은 데뷔 2년차에 '학교 2017'의 주인공을 맡아 빠른 성장 속도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개인적 성과 위에서 주연 이상의



장동윤(왼쪽)과 김소현

책임까지 안게 됐다. KBS는 '조선로코-녹두전'을 끝으로 밤 10시대 월화드라마를 잠정 폐지할 계획이어서 김소현과 장동윤의 활약에 힘입어 '조선로코-녹두전'이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퓨전사극 경쟁에도 나서게 된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청춘스타들이 유행한 이야기를 펼친다는 공통점을 지닌 JTBC 월화드라마 '조선훈남공작소 꽃파당'이 그 상대다. 김소현과 장동윤이 이처럼 책임을 다 하며 안방극장에 젊은 기운을 안겨줄지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백슬미 기자**

## RIVADI COMFORT SHOES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모델명: 리바디-77  
색상: 다크브라운 (Dark Brown)

## 2019 정통 유럽브랜드 "리바디" 정식런칭

소프트한 외피, 완벽한 통풍, 강력한 미끄럼방지, 유럽풍 디자인

정통 유럽 브랜드 리바디가 새로운 감각의 컴퍼트화를 출시하였다. 부드러운 외피와 완벽한 통풍성에 강력한 미끄럼방지 기능을 탑재한 컴퍼트하다. 기존의 신사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내구성을 겸비하였고 디자인 또한 유럽풍으로 세련되고 수려하다.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외피는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신는 듯 안 신는 듯 발에 감기는 착화감이 압권이다. 새로운 신발은 발에 잘 맞지 않아 일

마간 신어야 비로소 발에 맞춰지지 만 리바디 컴퍼트화는 처음 신는 사람

도 오랜 시간 신는 신발 처럼 발에 잘 맞는다. 유럽풍 디자인은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리며 다크 브라운의 외피 색상은 중후하고 우아한 패션감을 만들어 준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편안하게 신을 수

불편한 신발 때문에 고민이라면 발이 편한 리바디가 최선입니다!

있는 것이 리바디의 장점이다. 리바디 컴퍼트화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기존의 제품들과는 완벽하게 차별된다. 밑창과 외피로 이어지는 부분은 꼼꼼한 손바느질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파손이나 훼손의 염려가 없어 장기간 신을 수 있다. 또한 밑창은 잘 닳아 지지 않는 특수 러버창을 채택하여 밧길이나 눈길에서도 미끄럼없는 안전한 보행을 만들어 준다. 강력한 밑창은 과격한 움직임이나 거친 장소에서 보행을 할 경우에도 발을 보호해 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리바디 컴퍼트화는 발의 모양이 좋지 않아 기성화를 신기 힘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부드러운 외피는 발의 모양대로 감싸주기 때문에 어떠

한 형태의 족형에도 마치 맞춤화 처럼 잘 맞아 발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발이 편한 리바디 컴퍼트화는 장시간 보행을 하여도 발이 피곤하지 않고 발이 편해 일상화에서 작업화 및 여행, 야외활동

기준가: 138,000원  
파격가: 49,8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mm

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2019 런칭기념으로 파격할인 이벤트가 진행중으로 놀라운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발관리가 중요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2019 리바디 컴퍼트화를 강력 추천드린다. 이벤트는 선착순 100분 한정으로 파격가 및 무료배송으로 진행 되고있다.

제품구입문의 : 1566-1788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주)신수테크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